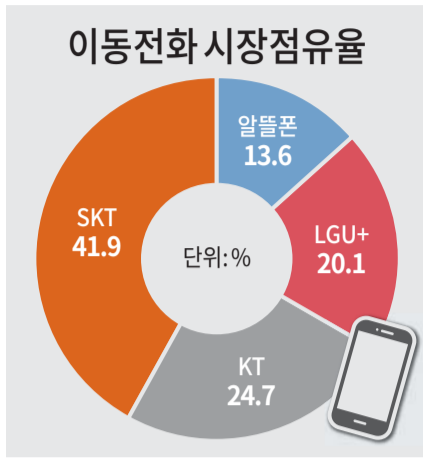


알뜰폰·배달앱에 공들이는 국민·신한銀, 데이터 확보 사활

KB국민銀 알뜰폰서비스 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여부 논의 신한銀, 뽕겨요 '부수업무' 요청 고객정보 확보로 맞춤형 상품 제공



6조 110억원. 지난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당기순이익이다. 시중은행 1, 2위를 다투는 은행이 요즘 집중하는 분야는 알뜰폰 서비스와 배달앱. 자체 데이터를 확보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석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소위원회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LiivM)의 최종승인여부를 논의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의 제공내용, 방식, 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 적용을 제외시켜주는 제도다.

◆규제 특례로 알뜰폰·배달앱서비스 승승장구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비

금융업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은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리고 출시 4년만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수는 41만 5000명으로 출시 3년만에 35만명을 넘어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위축으로 한 톨이라도 더 아끼려는 사람들이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며 "통신사와 달리 유심칩을 자체 휴대폰에 끼우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각종 부수거래 실적에 따라 통신비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이용하려는 사람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사업은 비단 KB국민은행에만 그치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12월 음식 배달앱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신한은행의 배달앱 '뽕겨요'는 서비스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뒤 현재 신한솔(SOL)앱 내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다. 이날 기준 뽕겨요의 배달앱 순위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 이어 4위다. 가입자수는 165만명, 가맹점수는 6만여개에 달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수익보다 데이터 확보

은행들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이유는 자체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하며 "금융·통신 결합정보를 토대로 신용평가를 개선하겠다"며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통신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넣어야 하는 유심칩에 KB국민은행의 인증서를 포함했다. KB국민은행의 모바일 뱅킹앱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또 통신사의 경우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고객의 이동 정보, 통신비 납부내역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고객의 소비패턴, 신용정보를 통해 신용정보부터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울러 신한은행도 음식을 모바일 뱅킹앱(SOL)에서 주문하고, 주문받을 수 있게 해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자영업자의 매출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기존 시장 반발 ↑

다만 이들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될수록 기존시장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알뜰폰이나 배달앱 서비스의 경우 누구나 진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해서 특례를 허용할 경우 기존 시장

의 피해만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KB금융의 알뜰폰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60여곳이 넘는 중소 알뜰폰업체는 피해를 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원가(망 이용료) 3만원 대인 데이터 11GB의 요금제를 2만원대에 팔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의 배달앱서비스도 수수료가 낮더라도 다른 금융상품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삼정KPMG 관계자는 "금융생태계의 빅블러를 고려한 전방위적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금융이 비금융 사업을, 비금융이 금융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 늘수록 금융소비자보호 등 잠재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특화은행 도입 ‘시기상조’... 인뱅 건전성 관리부터”

글로벌 은행 잇단 파산·위기에 당국, 시중은행 과점 완화 '제도' 인뱅, 외형성장 치중... 연체율 ↑



국내 은행의 과점체제 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화은행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출범 당시에도 '메기 역할'을 기대했지만 현재는 외형만 성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상태다. 대표적으로는 ▲소규모 특화은행(챌린저뱅크) 도입 ▲스플라이스스 ▲지방은행의 역할 확대 등이 거론됐다.

다만 글로벌 은행들의 잇따른 파산과 유동성 위기 여파로 금융당국이 추진하

고 있는 '시중은행 과점 완화' 제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화은행 실행으로 미 실리컨밸리는 행(SVB)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SVB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초저금리 시대에서 가파른 성장을 이어나가며 국내 도입 모델로 언급돼 왔다.

지난 3일 개최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SVB 우수사례로 소개하면서 토론했다. 당시엔 SVB가 파산하기 전이다. 하지만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발생으로 파산까지 진행되면서 부실한 경영 구조를 보여줬다.

과거 인터넷은행 출범 당시에도 금융 시장에서 메기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재는 급격한 외형 확장으로 연체율만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2017년 케이뱅크를 시작으로 2019년 카카오뱅크 2021년 토스뱅크가 설립됐다. 도입 당시 혁신과 포용을 외치며 디지털 혁신 측면에서 인터넷은행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중은행 모바일 채널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또한 중저신용자(KCB 기준 하위 50%) 대출 취급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는 탓에 외형확장에는 성공했지만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잠재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뱅의 고정이자여신(NPL) 비율은 ▲케이뱅크 0.95% ▲카카오뱅크 0.36% ▲토스뱅크 0.53%를 기록했다.

NPL 비율은 은행의 총 여신(대출)에서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이 차지하

는 비율이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NPL 비율(0.19~0.26%)을 감안하면 인뱅의 중·저신용 대출 확대가 건전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뛰면서 차주들의 상환 능력 약화가 현실화된 것이다. 금융의 메기 역할을 기대했던 인뱅의 '건정성 악화'로 특화은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뱅이 급격한 외형 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어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역시 수익의 대부분이 예대마진에 치우치면서 시중은행과 비슷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 이미 퇴색된 상태"라며 "시중은행 과점체제를 막고 싶은 금융당국입장에선 새 특화은행보다 인터넷은행 개선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지적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창립 60주년' 새마을금고 안정적 고객보호제로 총 자산 300조 눈앞

창립 60주년을 맞은 새마을금고가 리스크 관리를 통해 60년의 역사를 넘어 100년의 미래를 다져 나가고 있다.

2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순이익은 1조 5575억원을 나타냈다.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284조원을 달성해 3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고객 보호제도가 경쟁력으로 꼽힌다.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이 추진될 경우 새마을금고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에게·적금 지급요구를 대응하기 위해 운용중인 '상환준비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2조4409억원이 적립돼 언제든지 예·적금 지급이 가능하다.

유동성 비율 역시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새마을금고 전체 유동성비율은 112.8%로 상시적인 예금 지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출 리스크관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조만간 '새마을금고 대출 대주단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전국 1294개 새마을금고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주단협의체를 통해 금고의 대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사전적 리스크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 60년의 역사를 함께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혁신과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새마을금고 100년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신한은행, 주담대 이자유예·기한연장 8700억 지원

고금리 시기 선제적 금융지원 5900여명 고객 이자유담 해소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과 기한연장 프로세스를 통해 5900여명의 고객에게 약 8700억원의 금융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말 대비 0.5% 포인트(p) 이상 상승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

와 20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 중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유예에 유예되어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고 유예기간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비용은 없다. 약 4개월간 이자유예를 신청한 고객은 1200여명으로 대출금액은 약 27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작년 5월 주택담보대출 기한연장 프로세스 신설을 통해 기존 금리 조건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

대출 기간을 최장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4일까지 만기연장 혜택을 받은 고객은 약 4700여명, 대출금액은 약 6000억원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시기 이자유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상생금융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신한은행 본점